

바르멘 신학 선언 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

전 철 (신학동네 <http://theology.kr>)

2008 년 3 월 17 일

차 례

차 례	1
1 역사적 기원	1
1.1 1933 년의 상황	1
1.2 1934 년의 상황	3
2 5월 29-31 일 바르멘 신학선언	4
3 바르멘선언의 주요 테제	5
4 나가며	8
5 참고문헌	8

1 역사적 기원

1.1 1933 년의 상황

바르멘 선언은 1930 년대 나치정권에 결부된 교회내적 도전에 저항하여 개혁신교, 루터교, 연합교가 공동으로 대항하고 작성한 선언문이다. 바르멘 선언은 1934 년 5 월 29-31 일 열린 고백교회 총회에서 발표되었다.

바르멘선언의 역사적 기원은 1920 년대 등장했던 독일 그리스도인 신앙운동 (Glaubensbewegung Deutsche Christen) 부터 시작된다. 뢰플러Löffler와 로이트호이저Leutheser로 시작된 이 신앙운동은 점차 확대되어 호센펠더Hossenfelder와 윌리암 쿠베William Kube 에 의해 1932 년 6 월 6 일 **독일 그리스도인 신앙운동Deutsche Christen Glaubensbewegung**으로 새롭게 조직화 된다.

원래 독일교회는 독일의 특화된 역사적 조건에 의거하여 단일화된 연합체의 성격을 지니지 않았었다. 단지 독일개신교회는 22 개주 단위 교회들이 느슨한 연방체제를 형성해 왔고 1922 년에 독일개신교 DEKB (Deutsche Evangelische Kirchenbund) 라는

연합적인 조직으로 존재했었을 뿐이다. 이 DEKB는 1933년 11월 7일 DEK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GDC의 등장은 독일의 교회내적 지형으로 헤아려 볼 때 DEKB와 신학적으로 대립적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GDC의 등장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DEK의 신학적 내용들이 새롭게 구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¹⁾

1930년대 초는 독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 당시 히틀러는 권력을 이양받게 된다.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는 힌덴부르크에 의해 국가의 총통Reichkanzler으로 임명을 받게 되고 권력을 부여 받는다. 히틀러의 당이었던 NSDAP당은 1933년 3월 5일 총선Reichtagswahl에서 절대적인 압승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5월 23일 독일 의회의 입법권이 박탈되고 히틀러에 수권법Reichermächtigungsgesetz이 부여된다.

1933년 4월 7일에는 **아리아조항Arierparagraph**이 등장한다. 이 아리아조항에 포함된 유대인에 대한 적대적 관점은 이후에 교회투쟁의 중요한 발화점과 신학적 쟁점이 된다. 이후 5월에는 니몰러 Niemoller, 야코비Jacobi, 큐네스Kunneth, 하임Heim 등 젊은 개혁자들의 운동Jungreformatorische Bewegung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5월 7일 카셀에서는 독일개신교의 고백총회가 소집되며 뮐러감독의 추방을 결의한다.

당시 독일은 지방분권적 사회제도가 지배적이었으나 NSDAP의 정책에 의거해서 모든 방면의 사회체계적 통합과 조직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22개주 단위 교회들이 느슨한 연방체제인DEKB는 이 상황에서 1933년 11월 7일 DEK(Deutsche Evangelische Kirche)라는 새로운 단일조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통합을 바탕으로 7월 23일 독일개신교 총대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NSDAP와 긴밀하게 결탁된 DC당이 총회세력을 70프로 장악하게 된다.

이러한 교회내적 근거를 지니지 않은 아리아조항Arierparagraph, DEK의 조직 및 DC의 교회세력으로의 장악으로 인해 5월에 발화되었던 젊은 개혁자들의 운동Jungreformatorische Bewegung 세력 및 위기감을 느낀 목사그룹들은 마틴 니몰러를 중심으로 9월 11일 베를린에서 **긴급목사동맹Pfarrernotbund**을 구성한다.

9월 27일에는 국가총회Deutsche Nationalsynode에서 **루드비히 뮐러Ludwig Müller**가 국가감독Reichsbischof에 선출된다. 뮐러는 히틀러가 그의 배후에서 교회의 끄나플로 삼기 이해 세운 종교담당 특별보좌관이자 군목 출신이다. 원래 긴급목사동맹 세력은 보델슈빙Bodelschwing을 국가감독의 후보로 지원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1월 13일은 독일교회의 GDC에 대한 위기감을 명백하게 확인하게 한 중요한 사건Sportpalastskandal이 등장한다. 독일 그리스도인 신앙운동 GDC 인사들은 베를린

1) 물론 DEK의 형식적 재편은 히틀러 정권의 체제적 전략 속에서 이루어진다.

체육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²⁾ 이는 급진 민족주의적, 반유대주의적 GDC의 정신과 관점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계기였으며,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1.2 1934년의 상황

1934년 1월 1일 167개의 개혁교회에서 온 320명의 목사와 교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바르멘에서 최초로 자유 개혁교회 총회 Freie reformierte Synode가 열렸다. 이 총회에서는 „독일 개신교의 개혁적 신앙고백들의 바른 이해에 관한 선언“Erklärung über das rechte Verständnis der reformatorischen Bekenntnisse in der DEK³⁾이 채택된다⁴⁾. 여기에서 바르트가 발표한 선언은 이후 바르멘 선언의 기초자료가 된다(BTE D).

1934년 1월 4일은 국가감독인 뮐러의 이른바 „자갈물림법“Maulkorberlass가 이루어진다. 자갈물림법의 주요 내용은 교회가 NSDAP의 교회정책에 관련된 어떠한 논의나 토론과 비판을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들이다. 1월 25일에는 제국수상실에서 히틀러와 14명의 교회지도자들간의 면담 Empfang bei Hitler이 이루어진다. 면담 시작부터 괴링은 교회지도자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니뉘러의 전화통화와 외국신문과의 인터뷰를 트집잡는다. 교회의 입장을 전하려 했던 면담은 니뉘러 목사에 대한 괴링의 전략적인 비판으로 인하여 오히려 수세에 몰리며, 마이저와 부름 주교는 오히려 니뉘러 목사와 거리를 두어왔다고 그들의 입장을 변호하게 되었다.

2월 18-19일에는 개혁교회, 루터교회, 연합교회가 참여한 제1차 라인란트 독립노회 eine Freie Synode der Rheinischen Provinzialkirche가 열렸으며 3월 16일 도르트문트에서 베스트팔렌 노회가 열렸다. 칼 바르트는 4월 파리의 자유개신교대학에서 강연을 하였다.

4월 11일 부름과 마이저는 뉘른베르크에서 독일개신교교회 DEK 신앙고백공동체 Bekenntnisgemeinschaft를 결성하였다. 회장 코흐 Philipe Koch를 정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신학위원회와 교회활동위원회의 결성을 고려하였다. 뉘른베르크 총회는 고백교회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1934년 5월 7일 카셀에서 제3차 형제위원회가 열린다. 한스 마이저의 뜻에 의하여 루터교 신학자이자 에어랑엔 교회사 교수인 헤르만 사세 Herman Sasse가 신학위원회의 멤버로 속하게 된다. 카셀의 형제위원회에서 DEK의 신앙고백노회를 5월 29-31일 바르멘에서 개최할

2) Vgl. dazu "Die zweite Gruppierung war die Glaubensbewegung Deutsche Christen (GDC), die seit ihrer Gründung im Juni 1932 durch den Berliner Distriktleiter der Partei, Wilhelm Kube, bis zu ihrem faktischen Ende nach dem Sportpalast Fiasko im November 1933 eine Art Schirmorganisation für alle anderen Gruppierungen Deutscher Christen war." A. James Reimer (Hg.), Emanuel Hirsch Und Paul Tillich: Theologie Und Politik in Einer Zeit Der Krise, (Walter de Gruyter 1995), 90.

3) Vgl. <http://www.verein-fuer-rheinische-kirchengeschichte.de/zeitlei5.htm>

4) Vgl. <http://duepublico.uni-duisburg-essen.de/servlets/DerivateServlet/Derivate-5168/gesamtof.htm>

것을 결의한다.

5월 15-16일에 프랑크푸르트의 베젤호프 호텔에서 칼 바르트(개혁신), **아스무센**(루터교), 브라이트(루터교)가 참석하여 바르트의 초안(BTE I)을 바탕으로 바르멘 선언의 6개의 내용이 작성된다(BTE II). 헤르만 사세는 아파서 이 초안작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내용은 뷁르텐부르크의 루터교 비숍인 부름Würm과 바이에른의 루터교 비숍인 마이저 Meiser의 의하여 다시 수정이 된다(Leipziger Entwurf, BTE III). 부름과 마이저는 루터교의 고백서Confessio 전통과 이해의 바탕 속에서 교회 선언문Bekanntnis의 신학적-교회적 의미에 대한 염려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 역사적 콘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선언문으로서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혁신교와는 달리 루터교 전통에서의 선언문은 보편적이며 그 통일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1530년에 작성된 아우그스타나 고백문Confessio Augustana과 바르멘 선언과의 연속성/불연속성의 문제도 루터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신학적 문젯거리였기 때문이다.

아스무센과 사세는 5월 24일 같이 모여서 바르멘 선언문에 대한 수정을 가한 후에(Erlanger Entwurf, BTE IV), 아스무센은 바르트가 있는 본으로 가서 수정된 문건의 동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다시 요구와는 별개로 자신의 관점 속에서 5월 26일 선언문을 수정한다(Bonner Entwurf, BTE VII).

2 5월 29-31일 바르멘 신학선언

1934년 5월 29-31일에는 25개주 교회와 139명의 대표 참석하여 바르멘에서 신학 선언을 발표한다. 바르멘 신학선언은 교회가 현실적으로 처한 문제에 대한 순수한 신학적 선언이었으며, 이 본문에는 히틀러의 폭력과 유대인학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루터교 신학자인 사세Sasse와 알트하우스Althaus의 뜻대로 성례전이라는 단어도 문안에 추가가 되었다.

이후 바르멘 선언의 신학적 관점에 대한 루터교 신학자들의 입장과 견해가 아주 침예하게 진행된다. 우선 사세Sasse는 마이저Maiser에게 보낸 5월 21일의 서신에서 바르멘 선언은 루터교적이지 않으며 너무 연합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zu unionistisch!"고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다.

알트하우스Althaus은 바르멘 선언을 루터교 관점에 대한 배신으로 이해한다. 바르멘선언은 율법Gesetz에 관한 언급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개념Volsbegriff도 다루어지지 않는다. 알트하우스에 있어서 민족-국민Volk, 종족Rasse와 같은 개념은 자연질서natürliche Ordnung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세와 알트하우스가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DC의 신학적 관점을 동조하지는 않고, 오히려 비판적인 자리에서 있다.

바르멘선언문 작성에 참석하였던 함부르크의 루터교 비숍인 아스무센Assmussen은 이러한 루터교 신학자들의 비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6월 11 일에는 바르멘 선언의 관점에 대항하는 두 루터교 신학자인 **엘러트Elert**와 **알트하우스Althaus**에 의하여 **안스바하 선언문Ansbacher Ratschlag**이 등장한다. 안스바하 선언문에서는 바르멘 선언에서 배제되었던 율법Gesetz의 문제를 다룬다. 율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다(Gesetz ist der unwandelbare Wille Gottes). 즉 하나님은 가족, 민족, 국가라는 창조질서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한다는 관점에서 이 선언문은 작성이 된다. 엘러트와 알트하우스와 유사한 관점을 지니는 신학자로서 **임마누엘 히르쉬Immanuel Hirsch**가 있다.

3 바르멘선언의 주요 테제

바르멘선언의 주요 테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THESE 1. Jesus Christus spricht: Ich bin der Weg und die Wahrheit und das Leben; niemand kommt zum Vater denn durch mich. (Joh 14,6)

Wahrlich, wahrlich, ich sage euch: Wer nicht zur Tür hineingeht in den Schafstall, sondern steigt anderswo hinein, der ist ein Dieb und Räuber. Ich bin die Tür; wenn jemand durch mich hineingeht, wird er selig werden. (Joh 10,1.9) Jesus Christus, wie er uns in der Heiligen Schrift bezeugt wird, ist das eine Wort Gottes, das wir zu hören, dem wir im Leben und im Sterben zu vertrauen und zu gehorchen haben. Wir verwerfen die falsche Lehre, als könne und müsse die Kirche als Quelle ihrer Verkündigung außer und neben diesem einen Worte Gottes auch noch andere Ereignisse und Mächte, Gestalten und Wahrheiten als Gottes Offenbarung anerkennen.

These I :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Wort Gottes과 하나님의 계시Gottes Offenbarung을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다. 이 테제에서는 바르트의 말씀의 신학이라는 관점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 루터교 전통에서의 복음과 율법의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상위의 테제로 용해된다. 알트하우스는 원계시Ur-Offenbarung의 문제로 테제 1을 문제 삼는다. 히르쉬는 복음과 율법, 그리고 창조질서의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테제 1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바르트적 관점에서 복음과 율법은 구분되지 않는다.

- THESE 2. Durch Gott seid ihr in Christus Jesus, der uns von Gott gemacht ist zur Weisheit und zur Gerechtigkeit und zur Heiligung und zur Erlösung. (1. Kor 1,30) Wie Jesus Christus Gottes Zuspruch der Vergebung aller unserer Sünden ist,

so und mit gleichem Ernst ist er auch Gottes kräftiger Anspruch auf unser ganzes Leben; durch ihn widerfährt uns frohe Befreiung aus den gottlosen Bindungen dieser Welt zu freiem, dankbarem Dienst an seinen Geschöpfen. Wir verwerfen die falsche Lehre, als gebe es Bereiche unseres Lebens, in denen wir nicht Jesus Christus, sondern anderen Herren zu eigen wären, Bereiche, in denen wir nicht der Rechtfertigung und Heiligung durch ihn bedürften.

These II : 테제 2 또한 1 과 마찬가지로 루터의 두왕국론적 관점은 여전히 배제가 된다.

- THESE 3. Lasst uns aber wahrhaftig sein in der Liebe und wachsen in allen Stücken zu dem hin, der das Haupt ist, Christus, von dem aus der ganze Leib zusammengefügt ist. (Eph 4,15.16)

Die christliche Kirche ist die Gemeinde von Brüdern, in der Jesus Christus in Wort und Sakrament durch den Heiligen Geist als der Herr gegenwärtig handelt. Sie hat mit ihrem Glauben wie mit ihrem Gehorsam, mit ihrer Botschaft wie mit ihrer Ordnung mitten in der Welt der Sünde als die Kirche der begnadigten Sünder zu bezeugen, dass sie allein sein Eigentum ist, allein von seinem Trost und von seiner Weisung in Erwartung seiner Erscheinung lebt und leben möchte. Wir verwerfen die falsche Lehre, als dürfe die Kirche die Gestalt ihrer Botschaft und ihrer Ordnung ihrem Belieben oder dem Wechsel der jeweils herrschenden weltanschaulichen und politischen Überzeugungen überlassen.

THESE 4. Jesus Christus spricht: Ihr wisst, dass die Herrscher ihre Völker niederhalten und die Mächtigen ihnen Gewalt antun. So soll es nicht sein unter euch; sondern wer unter euch groß sein will, der sei euer Diener. (Mt 20,25.26) Die verschiedenen Ämter in der Kirche begründen keine Herrschaft der einen über die anderen, sondern die Ausübung des der ganzen Gemeinde anvertrauten und befohlenen Dienstes. Wir verwerfen die falsche Lehre, als könne und dürfe sich die Kirche abseits von diesem Dienst besondere, mit Herrschaftsbefugnissen ausgestattete Führer geben und geben lassen.

These III, IV : 여기에서는 교회론적 관점의 내용과 구조가 담겨 있다. 내용적으로는 세속적 정치적 관점이 결부된 설교와 교회적 결탁에 대한 단호한 거부를 제시한다(III). 구조적으로는 교회에 어떠한 공적 위탁에 대한 승인, 그리고 상하위계적인 지도자원리 등등 모두를 거부한다(IV).

- THESE 5. Fürchtet Gott, ehrt den König. (1. Petr 2,17)

Die Schrift sagt uns, dass der Staat nach göttlicher Anordnung die Aufgabe hat in der noch nicht erlösten Welt, in der auch die Kirche steht, nach dem Maß menschlicher Einsicht und menschlichen Vermögens unter Androhung und Ausübung von Gewalt für Recht und Frieden zu sorgen. Die Kirche erkennt in Dank und Ehrfurcht gegen Gott die Wohltat dieser seiner Anordnung an. Sie erinnert an Gottes Reich, an Gottes Gebot und Gerechtigkeit und damit an die Verantwortung der Regierenden und Regierten. Sie vertraut und gehorcht der Kraft des Wortes, durch das Gott alle Dinge trägt. Wir verwerfen die falsche Lehre, als solle und könne der Staat über seinen besonderen Auftrag hinaus die einzige und totale Ordnung menschlichen Lebens werden und also auch die Bestimmung der Kirche erfüllen. Wir verwerfen die falsche Lehre, als solle und könne sich die Kirche über ihren besonderen Auftrag hinaus staatliche Art, staatliche Aufgaben und staatliche Würde aneignen und damit selbst zu einem Organ des Staates werden.

These V : 테제 5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다룬다. 교회의 역할과 지위를 넘어서는 국가의 개입에 대한 거부, 그리고 국가와 교회의 상호 독립을 강조한다. 테제 5는 테제 1의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이라는 관점과 모순되는 측면을 지닌다. 이는 편집사적으로 루터교의 관점이 최종 텍스트에 많이 수용되었음을 말해준다. 루터교의 두왕국 이론이 비교적 새롭게 재해석되고 재현되고 있다. 이 테제에 관련하여 엘러트는 신적인 질서로서의 국가, 히르쉬는 민족질서, 알트하우스는 신에 의하여 구현된 질서로서의 국가라는 개념을 각각 제시한다.

- THESE 6. Jesus Christus spricht: Siehe, ich bin bei euch alle Tage bis an der Welt Ende. (Mt 28,20) Gottes Wort ist nicht gebunden. (2. Tim 2,9)

Der Auftrag der Kirche, in welchem ihre Freiheit gründet, besteht darin, an Christi Statt und also im Dienst seines eigenen Wortes und Werkes durch Predigt und Sakrament die Botschaft von der freien Gnade Gottes auszurichten an alles Volk. Wir verwerfen die falsche Lehre, als könne die Kirche in menschlicher Selbstherrlichkeit das Wort und Werk des Herrn in den Dienst irgendwelcher eigenmächtig gewählter Wünsche, Zwecke und Pläne stellen.

These VI : 테제 6은 교회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교회는 예수 특정한 지도자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과제를 부여받고 일을 해 나아간다.

4 나가며

바르멘선언은 단일한 관점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복잡한 정치사회적 교회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신학적으로 보아서는 개혁교 전통의 그리스도의 통치이론과 루터교의 두 왕국론의 신학적 긴장을 모두 담고 있다. 물론 GDC와 NSDAP의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교회개념, 복음개념, 그리고 교회적 위협에 저항하기 위하여 바르멘선언은 등장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인 루터교적 관점에서는 바르멘 선언에 대항하여 안스바흐 선언을 작성하였다. 우리는 히틀러의 팽창적 민족주의와 세계대전의 처참한 상황을 아직 직면하기 이전의 1933-34년의 상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두 왕국론의 관점을 가지고 시도하였던 루터신학의 국가와 민족개념에 대한 적극적 해석은, 결과적으로는 나치즘과 민족주의적 교회의 승인을 강조하였을는지 몰라도, 루터교적 신학의 적극성을 보여준다. 알트하우스는, 구체적으로 저지르는 오류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추상에 그저 숨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여전히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현실적-신학적 테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친 단일화-신학화를 거부하고, 바르멘 선언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발현의 맥락을 세세하게 살피는 것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둘러싼 여러 신학적 성찰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⁵⁾

5 참고문헌

1. Carsten Nicolaisen: Der Weg nach Barmen. Die Entstehungsgeschichte der Theologischen Erklärung von 1934, Neukirchen 1985.
2. Eberhard Busch: Die Barmer Thesen. 1934 – 2004, Vandenhoeck u Ruprecht 2004.
3. Klaus Engelhardt: Die 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 Einführung und Dokumentation, Neukirchener Verlag 1998.
4. Martin Greschat: "Die Bedeutung der Sozialgeschichte fuer die Kirchengeschichte", in: Historische Zeitschrift 256 (1993), 67-103.
5. A. James Reimer (Hg.), Emanuel Hirsch Und Paul Tillich: Theologie Und Politik in Einer Zeit Der Krise, Walter de Gruyter 1995.

5) 2008년 2월 10일 작성한 Ver. 1을 TeX로 수정하였음 (2008년 3월 13일). Sportpalastskandal에 대한 설명과 각주를 첨가하였음 (2008년 3월 17일).